한국 국제회의 개최건수, 세계 10위권 진입

총 464건 개최, 8위 기록 1위는미국 936건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제회의 개최건수 세계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이참)는매년 세계 국제회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는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으로부터 2010년도 세계 국제회의 통계자료를 입수, 20일 공식 발표했다.

본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11,519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2009년 11,503건), 이 중 한국은 총 464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사상 최초로 세계 10위권에 진입, 세계 8위(서울 아시아 2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국제회의 건수가 정체 현상을 보인 데 반해, 한국은 전년(347건, 11위) 대비 117건 증가, 33.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세계 순위 역시 3단계 상승함으로써 세계 국제회의 주요 개최지로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줬다.

세계 주요 국가별 개최순위를 보면, 미국이 936건으로 1위를 기록해 작년에 이어 국제회의 개최 세계 순위 1위의 자리를 굳혔으며, 일본이 741건으로 2위를 기록, 전년대비 3단계 상승하여 아시아 국제회의의 메카로 자리매김 했다. 위를 이어 싱가포르가 725건으로 3위, 프랑스가 686건으로 4위, 벨기에가 597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0년은 아시아 주요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해였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세계 2위, 8위를 차지함으로써 2009년에 비해 모두 3단계씩 상승하였으며, 싱가포르 역시 세계 3위에 랭크되어 작년에 이어 일본, 싱가포르, 한국이 '아시아 지역 국제회의 3대 강국' 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내 도시별 성적을 보면 서울이 201건을 개최하여 세계 5위, 아시아 2위로 우뚝 올라섰고, 부산이 93건을 개최 세계 17위, 아시아 4위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순위가 20단계 급상승했다. 제주 또한 67건을 개최, 세계 27위, 아시아 7위를 기록함에 따라 서울, 부산, 제주 3개 도시가 아시아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밖에, 인천 지역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22건, 대전 18건, 광주 12건, 경주 9건, 대구 8건, 고양 7건이 집계되는 등 국제회의 지정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MICE뷰로 강성길 실장은 "한국의 세계 국제회의 Top 10 진입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면서 "이는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MICE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한국 MICE 산업의 위상 확립을 위한 공사의 노력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공사는 지역 컨벤션뷰로 및 센터와 협력하여 국내 MICE 통계 수집 및 시장조사를 강화하여 왔으며, 중앙-지역 MICE Alliance 조직을 확대하여 MICE 글로벌 캠페인, MICE 카드 도입 등 유망 MICE 발굴 및 유치를 위한 MICE 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 '7월의 추천 베스트 국내여행상품' 선정

현대아산의 '두타연 계곡 트레킹과 곰취찜빵 만들기' 등 7개 상품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남상만)는 지난 20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7월의 추천 베스트 국내여행상품' 에 선정된 현대아산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수여식을 가졌다.

이에따라 7월의 추천 베스트 국내여행상품 가운데 ▲당일관광은 '두타연 계곡 트레킹과 곰취찜빵 만들기' (현대아산), '영월나들이!! 1박2일 촬영지 "여배우 특집편"' (하나투어), '대관령 양떼목장/경포해변/커피로드' (웹투어)가 선정됐고, ▲1박2일 관광은 '평창 어름치 백룡동굴 탐사/동강 래프팅 기차여행' (홍익여행사), '대게먹고, 한우먹고, 백암온천 즐기기' (롯데관광개발)로 정해졌다.

이 밖에 2박3일 관광은 '서남해 일주와 전복체험여행' (한국드림관광), '한려수도와 다도해상 명소와 한식 여행' (웹투어) 등 2개 상품이 선정됐다.

'이달의 추천 베스트 국내여행상품' 은 당일관광, 1박2일 관광, 2박3일 관광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추천이 이뤄지며, 해당 여행상품은 중앙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홈페이지(www.ekta.kr)에 게재되는 혜택이 주어지고, 신문과 SNS 등을 통한 모객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관광에 대한 고객 및 업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내여행 신상품 개발 독려 및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5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베스트 국내여행상품' 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사랑의 운동회' 로 글로벌 나눔 실천

아시아나, 베트남 초등학생에 후원 물품 전달식 가져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 인천국제공항서비스지점 직원들이 베트남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사랑의 운동회'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22일 아시아나 인천국제공항서비스지점 직원 11명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서쪽 28Km거리에 위치한 탕와이현의 방밍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어린이들과 운동회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랑의 운동회' 는 베트남 어린이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줄다리기, 큰공굴리기 등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종목들로 구성하였으며, 현지 어린이들과 교감을 위해 사전에 베트남어를 익히는 등 양국의 문화 교류 증진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서비스지점 직원들이 참여한 자체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약 1,150만원 상당의 후원금으로 구입한 300개의 신발과 티셔츠 및 각종 교보재 등을 전달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심현아씨(아시아나 인천국제공항서비스지점)는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도 밝은 얼굴로 운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베트남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며 "아이들과 교사, 아시아나 직원 모두가 함께 뛰고 웃으며 어울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 인천국제공항서비스지점은 작년 12월에는 캄보디아 크데이 룬을 방문하여 현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사랑의 책가방' 을 전달하는 등 취항지 중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에 올레길, 둘레길 판다

대형여행사 10곳 한국 걷기여행 상품 개발위해 방한

프랑스 최대의 식품, 잡화 관련 유통업체인 오샹 그룹이 운영하는 오샹(Auchan)여행사, 트레킹 전문 여행사인 클럽 아방튀르(Club Aventure), 떼르 다방튀르(Terres d'aventure) 등이 포함된 프랑스 대형 여행사 간부 10명이 한국의 올레길, 둘레길을 포함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찾았다.

걷기여행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유명 걷기 코스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 파리지사와 아시아나항공사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

실제 프랑스에는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은 랑도네(긴 산책)를 즐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걷기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걷기 여행의 천국으로 전국에 18만 킬로미터의 랑도네 길이 조성되었고, 도보 가이드를 발간하여 전국의 랑도네 코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 및 수요를 반영하여 랑도네 상품을 개발키로 하고, 이 분야의 여행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걷기여행 코스와 한국의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키로 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 박재석 지사장은 "한국의 올레길이나 둘레길은 세계의 유명한 트레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하며, 한국 여행상품의 다양화, 고급화를 위해서도 아주 훌륭한 관광 소재"라면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한국의 올레길, 둘레길 등을 소재로 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직접적인 모객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는 프랑스 젊은 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젊은 층들에게 K-POP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 붐이 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젊은 층들에게는 '한류' 를 테마로 하고, 은퇴자를 포함한 중장년층에게는 랑도네 및 트레킹, 한국 정신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체험, 한국 전통음식 등을 소재로 한국관광홍보 마케팅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베니키아, 경영자 워크숍 개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

최근 정부 차원에서 숙박 시설 확충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숙박 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한국관광공사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브랜드 '베니키아(www.benikea.co.kr)' 를 운영하고 있는 베니키아사업단은 오는 30일 베니키아 호텔 아카시아에서 '2011 베니키아 가맹호텔 경영자 워크숍' 을 개최할 예정이다.

베니키아 가맹호텔 경영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 현재까지 베니키아 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의 발전 방향이 소개된다.

이는 향후 국내의 다른 중저가 관광호텔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최근 홍보마케팅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가맹호텔 경영자의 높은 관심과 함께 베니키아 가맹호텔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베니키아사업단의 의지에 따라 '베니키아 체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을 주제로 외부 초청 강사의 특별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캐세이패시픽항공, 전자비자 무료제공

캐세이패시픽항공은 다음달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호주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는 고객에 한해, 사전 신청자 전원에게 호주 전자비자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7월 15일까지 호주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단, 비자 발급 업무는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